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시원하게 뿜린 잘 구획된 대로나 신도시보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마을과 오래된 거리가 더 끌린다. 편리함으로 따지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좋지만, 안정감이나 친근함으로 따지면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무질서한 골목과 웅기중기 집들이 모여 있는 오래된 마을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북촌 한옥마을에 더욱 붐비고, 전주 한옥마을을 더욱 선호한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을 보러 관광을 가는 경우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본 알함브라 궁전을 끼고 있는 오래된 집들, 북경의 작은 골목, 일본의 시골 온천마을 장터, 도무지 질서하고는 거리가 먼 혼돈의 장소에 왜 사람들은 몰리고 감동할까? 우리는 질서는 아름답고 무질서는 추악한 것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질서를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질서를 벗어난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을 나와 좋은 기업에 취직하여 정년퇴

혼돈(混沌)의 미학

직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다니다가 자식들 좋은 배필 만나 결혼시키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었다. 자녀 결혼식과 자신의 장례식에 화환을 놓을 곳이 없어 꼬리표만 떼어내 벽에 걸어서 걸어놓으면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 입에서 칭찬이 마르지 않았다. 상식적 인생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는 온전할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다. 혼돈(混沌)이란 단어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직장을 자주 바꾸고, 전공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더 높은 차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세계로 재해석된다. 카오스(Chaos) 이론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의 상태에서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질서 속에 있는 또 다른 질서를 찾아내는 사고의 틀로 새롭게 응용되고 있다. 혼돈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전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이 뒤섞여 분리되지 않은 태초의 세상이다. 혼돈의 세상에는 미추(美醜)도 시비(是非)도 없다. 혼돈이란 단어는 '장자(莊子)'에 등장한다. 남해의

왕 속과 속북해의 왕 홀, 그리고 중앙의 왕 혼돈이 있었다. 속과 홀은 자주 혼돈의 땅에 가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해 주었다. 속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려고 서로 의논을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쉰다고 하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이 무질서하니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줘 보답하자고 결정하고 날마다 한 개의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혼돈의 몸에 7개의 구멍이 뚫리며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다. 혼돈은 무질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속과 홀은 혼돈의 몸이 구멍을 내어 질서를 만들어주었다. 결국 혼돈은 질서라는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질서와 합리성보다 어쩌면 무질서와 모호성에서 더 큰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장자의 역설의 철학이다. 혼돈은 질서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질서는 언제나 아름답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인가를 회의해 보고, 혼돈은 늘 추하고 불안하고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질서와 법을 강조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넣고 줄을 세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세상은 어쩌면 질서보다는 무질서 속에서 더욱 예쁜 꽃이 피고,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확실한 보다는 혼돈 속에서 해답이 더욱 다양할 수 있다. 혼돈을 기쁘게 맞이하자.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은 혼돈에서 나온 역동성이었다. 혼돈의 다양성이 죽으면 사회도 죽는다.

종교칼럼

모두의 행복!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삶의 한 가운데에서 서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나는 행복한가?"이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지금의 삶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해서 던지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거나 위기에 몰려 순탄했던 나의 삶이 무참히 무너져 내릴 때 던지기도 한다. 부족함 없고 편안하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도 문득 "잘 지내고 있는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향해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든 심각한 개인주의는 이기심을 넘어 관계성조차도 파괴하는 벽까지 만들어 버렸다. '무차별 폭력', '묻지마 범죄',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재난' 등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사회학자들은 그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통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

람들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 버림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라 하며, 이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극한 대립과 생존 경쟁으로까지 여겨져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안전과 풍요와 편안함이라는 무기를 얻지만, 패배한 이들은 밀려나 소외되어 좌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게 된다. 급기야 경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생명과 죽음으로 연결되어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폭력'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통합'이라는 종교의 역할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를 가르친다.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사회교리라 한다. 19세기 산업혁명 후 그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노동착취,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가 일어났다. 사회교리는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면서 형성되었다. 세상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갈라지고 무너져 내린 관계성을 회복하고, 특히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가난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연대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 했다. 그

래서 이 사회교리는 공동선과 보조성 그리고 연대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결국 가톨릭교회에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랑'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문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말하면서 우리는 내 개인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을 찾으려면 혼자서는 그 행복을 찾고 추구할 수 없다. 반드시 사회와 공동체가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선'이 발생한다. '도움'이라는 보조성의 원리는 자발적 발전과 자율적 삶을 증진해 공평의 기회를 찾도록 돕고, 연대성은 타인이 착취로 억압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섬기는 것이다. 서로의 행복을 위한 길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나'는 물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다. 최근 번역했던 스페인어 문장이 떠오른다. '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서적을 읽었다 해서 술에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저술한 요리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행복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진짜 행복은 절대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물론 우리 모두도!

社說

'전남형 월 1만원 주택', 청년인구 정착 계기로

전남도가 그제 파격적인 '전남형 월 1만원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도내 인구 소멸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아파트 1000호를 신축해 10년간 월세 1만원에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84㎡(32평형) 이하와 60㎡(17평형) 이하 아파트를 지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월 1만원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현재 운용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파격적인 주택정책은 급감하는 전

남도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 5년간 감소한 전남의 청년인구는 고령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6만7314명에 달한다. 특히 만 18~39세 사이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전남형 월 1만원 주택' 정책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이번 정책이 결코 청사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청년인구와 신혼부부들을 정착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육아 및 교육환경 조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전남형 월 1만원 주택' 정책 추진이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충장으로 살릴 대책 필요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 초입에 건물 4채를 허물고 30면짜리 주차장이 들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자리에 상가건물을 통째로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기 때문이다. 6일 충장로1-2-3가 상인회 등에 따르면 무인 유료주차장인 '충장로1가 주차장'이 11일께 동구 충장로1가 4번지 일대에서 문을 연다. 650여㎡(198평) 부지에 총 30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이곳은 원래 4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최근 토지 소유주 3명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다. 충장로의 노련자로 불리는 이 곳에 주차장을 건립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충장로 상권이 침체되면서 상가를 찾는 수요가 없다 보니 주차장을 건립한 것이다. 실제로 건물 주인은 지인 2명과 함께 2020년께부터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해 임대를 내놨는데, 3년여 동

안 찾는 이가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옆친데 댁친격으로 충장로·금남로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고공행진인데다 대부분이 수십년 전에 지어진 노후 상가여서 임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같은 현실은 충장로의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실, 충장로 상권의 침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충장로의 상가 공실률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신설 주차장이 충장·금남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공여지책으로 세운 주차장이 충장로 상권을 부활시키는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의 미래가 달린 충장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유입인구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의 프로야구는 1980년대 군사 정권이 '3S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시켰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학살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 정권은 국민들의 반군부 정서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3S였다. 3S정책은 섹스(SEX·향락산업),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식민지 집권 세력이나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우민(愚民)화정책을 말한다.

이후 프로야구는 지속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외연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국민들의 일상 한 가운데에 자리잡았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거의 1만~2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린다. 특이한 것은 관중 가운데 타력 10%, 약 1000~2000명 정도가 KIA 타이거즈의 상대팀을 응원하는 타지역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원정 온 야구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광주에

힐링 스포츠

서 1박을 하고 돌아가거나, 심지어 금·토요일이나 토·일요일 같이 이틀간 광주에 머물며 경기를 보는 팬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한 도시, 같은 장소에 1~2만명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가 얼마나 있을까.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이 올해로 개장 10년을 맞았다고 한다. 이 기회에 KIA와 광주시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팬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면 한다. 특히 광주시 군부가 의도한 대로 시민들이 프로야구를 보며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감을 확인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

①/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기고

논리로는 수긍해도 마음이 거부하는 말



박진영 공직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

한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 자식들이 축하연을 열기로 하고 말을 꺼냈더니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딸이 "엄마, 저도 여인이 되었어요"라고 했더니 "그건 네 얘기고"라고 받아쳤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누가 지었는지 사람의 마음을 잘도 짚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은 당사자는 그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이 꼭 즐겁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두렵고 슬픈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용재총화'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는 필자의 책 '결정적 말실수'에도 썼던 것이다. 조선 세종 때 판중추부사 벼슬을 하고 있던 민대생이란 분이 아흔 살을 맞았다. 그해 정월 초하루에 조카, 손자들이 와서 세배하고 '오래 사시라'고 축수를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백 살까지 사시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민대생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 나이 지금 90이니 100살까지 살려면 앞으로 10년 밖에 더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냐. 그런 박박한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다. 비판이나 비난이 아무리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해도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약점을 거론할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실언을 연구하면서 필자가 파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집단을 싸잡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특히 역풍이 크게 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집단 구성원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말은 불을 지르는 일이 나 마찬가지다.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연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날 한 강연회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젊은이들의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너무 높으니 개선하자며 연 공청회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젊은이들을 싸잡아 악마화하는 '시럽급여' 같은 거친 표현이 거센 역풍을 불러온 것이다.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의 착잡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말은 신중해야 한다. 말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